

전일동향

전일대비 2.80원 상승한 1,453.80원에 마감

1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.80원 상승한 1,453.8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50원 하락한 1,450.50원에 개장했다. 오전 장에서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1,450원을 중심으로 횡보 장세를 이어갔다. 그러나 이후 결제 수요 유입에 환율은 1,450원 중반대까지 레벨을 높이며, 1,453.8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5.6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84.32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50.50	1457.70	1449.20	1453.80	1451.90
	엔화	978.68	986.17	977.21	983.37	-
	유로화	1579.59	1584.06	1575.83	1577.66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33	-6.02	-13.55	-27.37
	결제환율(수입)	-0.7	-5.15	-11.71	-23.93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미국-EU 관세 전쟁 격화에...1,45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53.80) 대비 0.10원 상승한 1,451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국과 EU의 무역분쟁 고조에 따른 강달러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2월 PPI는 전월비 포함이었으며, 시장 예상치(+0.3%) 및 직전치(+0.6%)를 크게 하회했다.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. 트럼프는 EU가 미국산 위스키 50%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, 유럽산 주류에 200%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발언했다.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도 무역분쟁 불확실성 고조에 달러인덱스는 0.25 상승한 103.83을 기록했다. 관세 위협으로 인한 위험선호 위축에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-1.30%, S&P -1.39%, 나스닥 -1.96%로 마감했다. 위험회피심리에 금일 국내증시 외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며,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. 한편 유로화는 미국과 EU 무역분쟁 격화 소식 및 독일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녹색당의 지속적인 반대에 하락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도 환율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 등에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49.20 ~ 1458.4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4804.16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1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0813.57, -537.36p(-1.3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5.1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6019 억원